작년 어린이날 에어쇼를 하다 추락한 공군 특수비행팀 ‘블랙이글’의 김도현 소령도 끝까지 탈출하지 않았다. 1㎞밖에 안 떨어진 어린이 관객을 덮치지 않으려고 조종간을 놓지 않은 끝에 산화했다. 비행수칙에 ‘민간인부터 보호하라’ 같은 규정은 없다. 항공대 송병흠 교수는 “운전할 때 행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핸들을 트는 것과 같은 이치”라고 했다. 그러나 조종사들은 그것이 목숨을 버리는 선택이라는 걸 잘 안다. 보통사람이 흉내 낼 수 없는 살신성인(殺身成仁)이다.